

親朴·인수위... 대선 공신 청와대 비서실 대거 입성

40명 임명, 호남 출신 6명

청와대는 12일 정부비서관에 김선동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40명 전원의 인선을 확정했다. 문재도(광주)·최수규(전북)·김재춘(광주)·조인근(영남)·김형진(광주)·류정아(전북) 비서관 등 호남 출신은 6명이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서관 명단을 공개한 뒤 "인선의 제1기준은 전문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과 제1,2부속비서관에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보좌관이 각각 임명됐다. 연설기록비서관에는 조인근 대선캠프 메시지담당자, 의전비서관에는 우경하 외교통부 지역통상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정부수석 밑으로는 정부비서관에 김선동 전 국회의원,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정부 지방행정국장 등이 각각 확정됐으며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에 이종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비서관에 이해진 인사위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등이 각각 임명됐다.

경제수석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

에 주현환 기재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비서관에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 중소기업비서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국토교통해양비서관에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실장, 농수산식품비서관에 정황근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이 각각 확정됐다.

미래전략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는 과학기술 장진규 과학기술위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보방송통신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등이 각각 임명됐으며 홍보수석실의 경우 이미 임명된 남녀 대변인과 춘추관장 외에 홍보기획비서관에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문화수석실에는 교육 김재춘 영남대 교수, 문화체육 서미경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관광진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 이 비서관 명단에 올랐다.

고용복지수석 산하에는 보건복지장우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여성가족 정영순 이화여대 교수, 고용노동사 한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 각각 확정됐다.

외교안보수석실의 경우 외교비서관에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

과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의 경우, 정 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이날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협력비서관에 김홍균 외교부 평화외교기확단장이 임명됐으며 위기관리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으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과 서울대 정보분석비서관이 각각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된 비서관 면면을 보면 비서실장 직속과 정부·민정·홍보 라인에 친 박(친박근혜)계 인사가 대거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인수위 및 당선인 비서실 출신은 절반을 넘는 22명에 달해 박 대통령의 '쓴 사람을 또 쓴다'는 인사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11명(대구·경북 6명, 부산·경남 5명), 충청 7명, 호남 6명(광주·전남 4명, 전북 2명), 강원 4명 등이었다. 영남 우대, 호남 확대 인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섯 비서관은 6명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여성 비서관수(3명)보다 많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조직도



■ 청와대 비서관 명단

소속	비서관	이름(나이)	출신지역 및 대학	주요경력	소속	비서관	이름(나이)	출신지역 및 대학	주요경력	
국정 기획	기획	홍남기(53)	강원·한양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미래 전략	과학기술	장진규(51)	충남·서울대	국가과학기술위 과학기술정책국장	
	국정과제	오군(61)	서울·한국외대	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		정보방송통신	김용수(50)	서울·서울대	방송통신위 방송진흥기획관	
정무	정무	김선동(51)	강원·고려대	18대 국회의원	전문위원	기후환경	최홍진(51)	대전·연세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행정자치	박동훈(54)	강원·성균관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교육 문화	교육	김재춘(50)	광주·서울대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국민소통	신동철(52)	경북·경북대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문화체육	서미경(여·44)	경북·경북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사회안전	강신명(50)	경남·경향대	경북경찰청장			관광진흥	류정아(여·50)	전북·서울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
민정	이종희(46)	충북·고려대	법무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고용 복지	보건복지		장우주(여·54)	충북·이화여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공직기강	조용현(51)	대구·서울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성가족	정영순(여·61)	서울·이화여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무	이해진(여·50)	부산·부산대	동아대 로스쿨 교수		고용노동	한창훈(51)	충남·경희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민원	임종훈(60)	경기·서울대	인수위 행정실장		외교 안보	외교	김형진(51)	광주·서울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홍보기획	최형두(51)	경남·서울대	총리실 공보실장	국방		연재욱(54)	서울·육사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변인	김형(여·54)	서울·연세대	위키트리 부회장	통일		홍용표(49)	서울·연세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정홍보	백기승(56)	서울·연세대	We-Up Investment 대표이사	비서 실장 직속		제1부속	정호성(44)	서울·고려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무	최상화(48)	경남·진주산업대	대통령취임준비위 실무추진단장		제2부속	안봉근(47)	경북·대구대	인수위 행정실		
경제금융	주현환(52)	서울·서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총무	이재만(48)	서울·한양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산업통상지원	문재도(53)	광주·서울대	지식경제부 산업지원협력실장		의전	우경하(51)	경북·한국외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경제	중소기업	최수규(53)	전북·고려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국가 안보실	연설기록	조인근(52)	전남·서강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국토교통해양	김경식(53)	대구·한양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국제협력	김홍균(52)	부산·서울대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농축산식품	정황근(53)	충남·서울대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위기관리	김희철(55)	경기·육사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정보융합	서용석(55)	강원·육사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관료의 꽃' 차관 인사도 탕평은 힘들 듯

MB 5년 고위관료 씨 말라

'관료의 꽃'인 차관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 소외를 받은 호남지역에서는 이번에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고위관료의 씨가 마른 상태여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모두 3명의 차관급이 있는 국무총리실의 경우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 이호영 국정운영2실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는 강호인 조달청장(경남 함양),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강원 춘천),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강원 강릉),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대구)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 또 예산과 공공정책을 맡는 재정부 2차관에는 이석준 예산실

장(부산)과 김규옥 기획조정실장(부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나로호 발사 성공을 주도한 양성광 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사무총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교육부 차관 후보로는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이성희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이 거명된다.

국방차관 후보로는 김광우 기획조정실장 내부 승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조현재 기획조정실장이, 2차관에는 외부 인사 기용이 점쳐진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에는 호남 출신인 박현출(무안) 농촌진흥청장과 최희중(광산)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후보로 관측된다. 이양호 기획조정실장,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식경제부 1차관 후보로는 정재

훈 산업경제실장과 김재홍 성장동력실장 이름이 나온다. 정만기 기획조정실장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2차관 후보군으로는 한진현 무역투자실장과 강남훈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 등 주요 보직자가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영찬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의 친정 복귀 또는 전반기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의 승진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용노동부 차관으로는 전문배 기획조정실장과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 1차관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박기풍 기획조정실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병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2차관은 이재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여형구 항공정책실장, 이재봉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총장에 순천출신 소병철 깜짝 발탁될까

내일 외청장 인사 단행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정부 각 부처의 외청장 인사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과 국제경찰을 누가 맡을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 외청은 모두 17곳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으며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과 국방부 산하에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안전행정부 산하에는 경찰청, 소방방재청이 있다.

일단, 대표적 사정기관장인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김진태 대검 차장과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등 3명이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올라왔다.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100여일째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제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 출신의 채 고검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배려 등을 고려한다면 소 고검장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장은 새 정부의 주요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보를 진두지휘하는 핵심 자리라는 점에서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내부 출신 중에는 현직 1급 청장의 이름이 우선 거론되는데 기수로는 행정고시 25회인 조현관(5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행사 27회인 박윤준(52) 본청 차장과 김덕중(54)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은호(55) 부산지방국세청장 등도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외청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배려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역 출신이 2~3명은 발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국민행복저축시대 KB국민재형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덜 내고
높은 금리로 더 받고 차곡차곡 모아 더 크게
재형저축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하세요



차곡차곡 모아 큰 재산으로! KB국민재형저축

- 가입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고객
- 계약기간 7년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농특세 과세) 혜택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가능

*이 예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품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십시오.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 바랍니다. *은행감사인 심의필 제155호(2013.3.5)

KB 국민은행

